

“불교학 디지털化 서두르자”

학술단체 홈페이지 10여개 개설 불구 연구성과 유용정보 가공노력 부족

이중 불교학연구회, 한국선학회, 성현선사상연구소, 보조사상연구소 등은 해당 학회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의 색인과 내용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역시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없다. 각 학회에는 100~400여 명의 회원들이 있지만, 이들이 다른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정보를 전혀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논문의 데이터베이스화한 논문 목록을 색인하고 이를 검색할 수 있는 불검색연진(불검색연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고계학술단체 홈페이지를 방문한 학자들은 키보드 조작으로 논문을 검색하고, 그 내용을 다운로드(가져오기)해 컴퓨터 상에서 책을 읽듯이 열람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최대의 학술지인 단체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이 2년 전부터 학회의 지원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학회의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학회 자체적으로 축적

해 온 디지털 인프라를 중요 평가자료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계학술단체는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게 됐다.

울산대 철학과 박태원 교수는 “국내에서 불교학 관련 정보를 찾는 것이 다른 인문학보다 훨씬 더 어렵다”며 “고계학술단체들이 학술정보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역사학회(hongik.ac.kr/~yoksa/)의 경우 1872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저서 및 논문 6만 6천여 권을 정리하고, 이를 관련 학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적잖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것은 학술정보가 전자 인프라로 가공될 때 관련 연구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불교학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해주종국대 교수 스님은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

니라, 21세기 불교학이 학문의 중심에 서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해주 스님에 따르면 전자 인프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던 불교학 연구성과를 타 전공자와 공유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불교학술지 지면이나 시공간적으로 제한적인 세미나 현장에 머물던 불교학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계층을 넓힐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회의 역할이다. 학회는 우선 디지털 콘텐츠를 구축하는데 청사진을 세워야 한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하고, 그 효과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콘텐츠 소유자 측인 학회와 디지털화하는 솔루션 개발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21세기는 디지털 인프라 시대다. 잘 갖춰진 그릇(하드웨어, 네트워크)에 다 양하고 맛있는 먹거리(소프트웨어, 콘텐츠)가 넘칠 때 한국불교학은 21세기에 그 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ooou@buddhania.com)



고계학술단체 홈페이지

‘불교학 연구성과’ 열띤 공방

‘불교학 현주소’ 세미나 발제자-동국대 신경전

조계종 총림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학담 스님)는 20일 서울 견지동 조계종 총무원 회의실에서 ‘한국 불교학의 연구성과’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조계종이 총림학교로서 불교학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동국대 불교대학의 연구 동향과 그 성과를 처음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중명(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씨는 ‘한국 불교학의 연구성과’를 통해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들은 지난 10년 간 평균 0.46권의 저서를 출판해 한국 교수 평균 출판율인 1.6권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96년 이후 전문 학술서적을 한 권도 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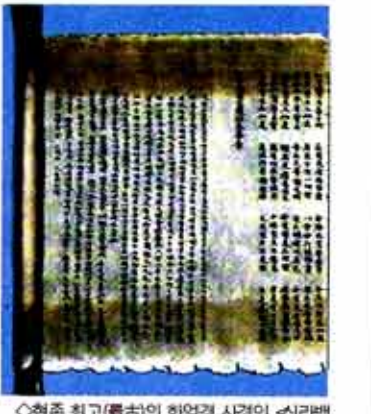
전재성(한국백리사성전학회)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교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이란 논문에서 “동국대학교의 불교학 연구는 아직도 개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학 정신의 폐쇄

성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닫힌 불교를 지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논평에 나선 김호성(동국대 교수)은 “동국대 불교대학이 일찍이 근대불교학의 성과는 도외시하고 오류와 역기능에만 주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구학(연세대 교수) 역시 “김중명 씨는 모든 것을 수량화해서 비교하고 있지만, 논문에서 불교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경준(동국대 교수)은 “근거 없는 주장과 편협한 시각, 신중하지 못한 추측과 표현이 많다”고 논평했다. 박해당(서울대 규장각 연구원) 씨는 “전재성 씨의 지적처럼 동국대에 불교 관련 아학연구소나 교육원이 없는 현실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문헌학만이 불교학의 전부라는 전 씨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국대 불교대학은 21일 학장실에서 이번 세미나에 대한 불교대 교수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 동국대 불교대학장 보광스님 등은 “실증되지 않은 자료로 사실을 왜곡한 발표문을 언론에 미리 유포한 것은 동국대뿐만 아니라 불교계 위상을 실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고려대장정연구소	www.sutra.re.kr
대각사상연구소	www.taegak.or.kr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www.k.dongguk.ac.kr
동국대 전자불전 연구소	ebti.dongguk.ac.kr
불교학연구회	www.bulgyohak.org
선어록연구회	www.sinology.or.kr
성현선사상연구소	www.songchol.net
원효학연구원	www.wonhyo.org
인도철학회	bora.dacom.co.kr
보조사상연구소	www.bojosasang.org
한국불교연구원	www.kibs.or.kr
한국불교학회	myhome.netsgo.co.kr
한국선학회	seonstudy.org

‘묵서 화엄경’ 축천무후字 연구 획기적 자료

현존 최고(最古)의 화엄경 사경인 <신라백지묵서 대방광화엄경> (국보 제196호·묵서 화엄경)에 대한 첫 실태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한국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묵서 화엄경은 축천무후(則天武后)가 등쪽 담겨있고 필사연도가 정확해 축천무후 연구에 획기적 자료로 밝혀졌다. 묵서 화엄경에 사용된 축천무후(初, 年, 月) 등 모두 13종 508자. 축천무후자는 축천무후 집권기(690~704)에 만든 이체자로 이후 125년간 사용됐다. 묵서 화엄경 발견 전까지 최고의 사경이었던 일본 정장원의 화엄경(768년)에는 이 축천무후자가 보이지 않아 묵서 화엄경이 시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한역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사경으로, 신라사경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또 이 화엄경은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사경의 발문에서는 유일하게 사경 절차와 그와 관



현존 최고(最古)의 화엄경 사경인 <신라백지묵서 대방광화엄경>

련된 불교의식을 설명하고 있어 신라문화에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사경에 참여한 19명이 관직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 신라사회의 관등과 신분관계를 밝히는 데도 중요한 자료라고 집필 책임자인 박상국 문화재연구원 예방민속실장은 말했다. 신라 경덕왕 13년(754)에 얽은 백자에 먹으로 사경한 묵서 화엄경은 화엄경 80권 가운데 권 제1~10과 권 제44~50까지의 17권이 두루마리 2축으로 전하고 있다. 1978년 발견 당시 한 축은 문체 있어 내용을 알 수 없었으나 1988~9년 보존처리를 통해 권 제1~10까지 임이 밝혀진 바 있다. 권형진 기자(jiny@buddhania.com)

“18·19세기 불화 분석 민화연구 한단계 발전”

정병모 교수 주장
조선시대에 서민들이 선호했던 민화를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18, 19세기 불화를 연구해야 한다는 이석 주장이 나왔다. 정병모(경주대 박물관장·사진) 교수는 16일부터 3일간 미국 L.A. 카운티박물관에서 열린 ‘한국미술사 국제 심포지엄’에서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불화에 나타난 민화 표현’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씨는 “18, 19세기 불화에는 민화적 요소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데 주목해야 한다”며 “따라서 불화와 민화의 비교연구를 토대로 민화의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화 속에서 민화의 기원과 변화를 읽어와 한다는 정 씨의 주장은 불경사극락전, 풍도사 나한전, 남장사 보광전, 신록사 극락전, 보광사 대웅전, 선원사 칠성각, 범어사 목성각 등 조선시대 중요 사찰에서 민화의 소재를 사용한 불화를 찾아볼 수 있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정 씨에 따르면 중·하단 탕화에서 민화적 요소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관동사 감로탱(18세기)을 보면 김홍도의 풍속화를 들여다보는 것 같이 당시의 풍속화 풍으로 묘사되어 있고, 흥천사 감로탱(19세기)에서는 전화를 거는 장면, 양복을 입고 싸우는 장면, 전봇대에 올라가 전기를 고치는 장면, 터널을 지나가는 기차의 모습 등이 등장한다. 이외에도 정 씨는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신증탱·시왕도·나한도·산신도 등에서 민화의 소재로 즐겨 사용된 지물이나 기물이 증가하는 현상도 지적했다. 정 씨는 결론에서 “이것은 불화가 당시 유행했던 회화의 유행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민화 연구의 결실들이었던 제작연대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중국 서안 선유사 신라고승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식 [황실사원 법문사 불지골(佛指骨)사리 친견 및 지장성지 구화산 지장왕보살 육신보전 천도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6월 13일 중국 서안 선유사 현지에서 중국 불교계, 관계 인사들이 동참한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의 친필 휘호 현판과 함께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식 행사를 봉행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중화의 대륙 중국의 심장부에 위치한 중국의 국보사찰에 한국인 기념비가 최초로 건립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할수 있습니다. 또한 선유사 부처님 진신사리 10과와, 중국의 황실사원 법문사에 봉안된 세계 최대의 불사리이자 유일한 불지골(佛指骨)사리도 친견합니다. 법문사 불지골사리는 역대 황제들이 9차에 걸쳐 영봉했고, 전투기들의 경호하에 국왕의 전용기로 태국 외유에 나섰으며, 중국 반환 이후 홍콩섬에 잠시 머물렀을 뿐 법문사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불지골 사리를 친견하는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윤달을 맞아 지장성지 구화산 신라왕자 김교각스님의 육신보전에서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증명:청화큰스님) 반야여행사에서는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식에 동참하실 불자들을 모집합니다. 무무 동참하시어 많은 인연과 공덕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 참가안내
● 일 정 : 1차 : 6월 11일 ~ 16일 (5박6일) · 2차 : 6월 12일 ~ 17일 (5박6일)
● 동 참 금 : 98만원 (포함내역 - 항공, 현지숙식, 일정상 입장료, 화장지 유행은천복, 1억원 여행자보험, 중국 비자 비용, 신공항이용료 및 출국세 등)
● 문의전화 : 조계사 (02) 732-2115 · 반야여행사 (02) 730-0020
자세한 일정에 관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팩스 및 E-mail로 일정표를 보내드립니다.
◆ 장소 및 일정 관계로 인하여 300명 선착순 마감합니다. 기념비 제막식 및 구화산 천도제에 동참하신 불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



(중국 구화산 육신보전)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쥬조계사반야여행사 > 후원 : 한국불교중앙협의회, 중국서안불교협회, 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방송, 불교TV